

광주 가장 비싼 집 윤림동 주택 5억2천만원...신안동 729만원 최저

광주 상승률 전국최저...공시가 광주 1.88%·전남 3.12% ↑

서울 이태원 64억원 '최고'·영광 낙월면 83만원 '최저'

광주시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남도 역시 혁신도시 개발 효과에도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으로 매겨졌다. 가장 싼 집은 영광군 낙월면

소재 주택으로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광주시에 가장 비싼 주택은 동구 윤림동 소재 주택으로 5억25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북구 신안동 소재 729만원이었다. ◇공시가격 최저가 영광 낙월면 주택 =공시가격대별로 표준 단독주택의 분포를 보면 전체 18만9919가구 중 2억

5000만원 이하가 17만721가구로 89.9%나 됐다. 이어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는 1만6817가구(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5가구(0.4%)였다. 광주의 단독주택은 3944가구로 가장 높은 가격대는 5억 초과~6억 이하로 1가구였으며, 2억5000만원 초과 5억 이하는 164가구, 1억초과~2억5000만원 이하 565가구, 5000만원초과~1억 이하 1956가구, 5000만원 이하 1258가구였다. 전남은 5000만원 이하가 1만840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5000만원 초

과~1억 이하 1804가구, 1억초과~2억 5000만원 이하 328가구, 2억5000만원 초과~5억 이하 41가구, 5억 초과~6억 이하 17가구 순이었다.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으며 광주는 8130만원, 전남은 2400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으로 작년(60억9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높게 매겨졌다.

가장 싼 집 역시 작년과 같은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주택으로 2만1000원 오른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 광주 최하위...울산 1위=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48%, 광역시(인천 제외)가 4.25%,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4.19%로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는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시·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으로 8.66%를 기록했다. 울산에서는 우정혁신도시, 테크노산업단지 등이 조

성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전남(3.12%), 대전(3.19%), 대구(3.23%) 등 8개 시·도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광주는 그나마 남구청사 이전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전년 1.14%보다 0.74%가 올랐으며, 전남도도 나주 혁신도시, 전원주택 주요 증가 등으로 전년 2.67%에서 3.12%로 소폭 상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군, 남악신도시 이익금 분배소송 패소

재판부 "개발 자체로 유·무형 이익" 전남도에 손 들어줘

무안군이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나눠달라며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29일 무안군이 전남도와 도 산하 공기업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150억원 규모의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일반에 적용되는 공영개발조례 적용이 배제되고 남악신도시개발조례가 특칙으로 적용된다"면서 "공영개발조례와 같은 사업이익금 배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장난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데 택지개발 이익까지 분배한다면 지지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안군은 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배분해 달라고 주장하며 전남도에 우선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둔 29일 나주시 송월동 나주 문화회관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차이나프렌들리 지원센터' 운영

호남대와 오늘 운영 협약

광주시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30일 오후 5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호남대학교와 '차이나프렌들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차이나프렌들리 지원센터'는 광주·전남지역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호남대 공자어학원 내에 설치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중국인 유학생·다문화가족·관광객들이 광주에 머무르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숙박·음식·교통정보 등 관광안내를 위해 중국어 상담 전용 전화기를 설치

해 24시간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교류정보도 관리한다. 호남대 공자어학원은 2006년 12월 중국 교육부와 합작으로 개관해 중·한 문화 교류의 중심 기지와 양국 우호의 상징이 돼 왔으며, 2014년에는 중국 후난대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학술토론회 등 16회에 걸쳐 중국과 다양한 문화교류·협약을 추진했다. 채영선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중국 유학생은 미래의 잠재 가능성이 큰 관광객이며, 이들이 광주에 머무는 동안 따뜻한 정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차이나프렌들리 우호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軍 복무 학점 인정 확대...가산점 부활은 수정

부대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제도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화(CC 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

다·가족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점수화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연합뉴스

친환경 축산물 직불금

다음달부터 3000만원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직불금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농막·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학부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2. 2(월)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육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학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신학대학원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2. 2(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805-1115 학부 062)805-1114